

사설

지속돼야 할 대학개혁

우리 대학이 '97 교육개혁추진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되었다고 한다. 교육부에 의해 지난 11일 발표된 40개 '97 교육개혁추진 우수대학' 중에서 우리학교가 종합순위 1위를 차지하여 그간의 노력이 헛된 것이 아님을 간접적으로나마 증명하게 되었다.

여기서 '간접적'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개혁으로 인한 만족도와 평가가 외부의 어느 기관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 대학 구성원 개개인이 피부로 느끼야 한다는 의미에서이다. 현실적인 여건상 대학의 개혁을 제정하기에는 앞으로는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의가 있을 수 없다. 그만큼 한국에서 대학으로 생존하기 위해서는 개선해야 할 참으로 많은 문제점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고, 따라서 대학의 구성원들이 느끼는 교육의 질은 형편없이 낮았다는 것도 공공연한 사실이었다.

어떻게 보면 교육부의 이번 발표는 새삼스러운 것일지도 모르겠다. 너무나 없이 변화와 개혁의 몸짓으로 바쁜 와중에, 그것도 아직 산적해 있는 많은 문제점들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대학이 개혁도 면에서 1등이고 어느 대학이 꼴찌라고 발표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가져보게 된다.

물론 우리대학이 수많은 대학들을 제치고 개혁도 면에서 으뜸이라는 평가를 받은 점은 참으로 가슴 뿌듯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호사다마라고 했다. 우리는 지금의 개혁의지가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기를 강조하고 싶다.

우선 개혁의 목적과 의미는 대학의 구성원들이 그 대학에서 누리는 교육서비스와 목적에 대해 깊이 동감을 하고 함께 할 수 있을 때 효과가 배가 된다는 점이다. 구성원들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몇몇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내보아도 외화내빈이 그칠 뿐이다. 거창한 구조와 장비 및 마스터플랜보다는 오히려 실생활과 관련된 사소한 정책에서 구성원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더한 법이다. 실제로 CRS인종제나 졸업학점 이수문제에 있어서 많은 학생들의 불만을 산적도 있었으며, 발표만 거창했지 실질적으로 누리는 혜택은 극소수에 불과했던 정책도 경험해 본 바 있다.

어찌보면 개혁이라는 거창한 주제앞에 그 정도야 참고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고 얼버무릴 수도 있지만 기실 개혁으로 인한 핵심이 경쟁력 강화와 질 좋은 서비스가 있다는 점을 상기시킨다면 가장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이다.

이번 교육부의 평가덕택으로 우리학교에는 적지않은 지원금이 돌아올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여기서 만족하기보다는 이제 외부의 인정만큼 내부 구성원들의 만족과 이해, 그리고 협력을 자발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와, 또 그것을 과감히 수용할 수 있는 결단력 있는 마음을 부탁하고 싶다. 그러한 결단력이 결국은 우리대학이 내세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경쟁력일 수밖에 없으며 또한 자타가 인정하는 개혁의 산실로 자리매김하게 만드는 원동력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다짐하고 싶다.

시론

대선에 가려진 국정감사

선거전 혼란에도 국정은 바로잡자



전 준 회
(정치학 석사 4기)

지난 10월 18일 건설교통부 감사를 끝으로 18일간 2백98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국감)가 막을 내렸다. 처음부터 대선을 두 달 앞둔 시점에서 과연 어느정도 효율적으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가 적지 않았다. 게다가 국감중반에 터진 김대중 국민회의 총재의 비자금 문제는 국감장을 본연의 기능을 망각한 여야의원들간의 추잡한 정쟁의 장으로 만들어 버렸다. 법사, 정보, 내무, 운영, 재정, 통일외무 등에서는 연일 고성과 사대질이 오갔다. 특히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대한 법사와 국감에서는 여야의원들이 '육탄전' 직전까지 가는 사태도 적지 않았다. 한편 이번 국감에서 국회의원들의 출석률은 어느때보다 저조했고 출석한 의원

조차 금방 자리를 뜨기 일쑤였다. 또한 국회의원들은 어느때보다도 유리한 집권가능성에 벌써부터 집권당 연습을 하는지 공무원들에게 꼬박꼬박 '님' 자를 붙였고 지난 1년간의 노고를 격려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반면 여당의원들은 연일 김대중 총재의 비자금을 폭로하고 주가 폭락과 기아사태 등 경제실정을 가지고 강경식부총리를 물리세우는 '송곳질문'을 과시했다.

이번 국감은 개혁과 변화의 가치 아래 출범한 문민정부의 공과(功過)를 최종적으로 평가하고 아울러 정권교체에 발생하는 행정이완현상을 방지한다는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특히 정치, 경제적으로 심각한 위기상태에 빠져있는 현상황에서는 그 의의가 더욱 크다고 하겠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대선이라는 바람둥이에게 몸과 마음을 빼앗겨버려 국감이라는 본연의 업무는 내팽겨쳐 버렸다. 한편 내년 예산심의도 모든 진영이 표를 의식하여 선심술 떼를 찾아 예산날리기에 급급한 실정이라고 한다. 지난 4월 열린 국회 예결위는 의결정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대선이라는

바람둥이에게 몸과 마음을 빼앗겨

국감이라는 본연의 업무는 내팽겨쳐 버렸다

족수 미달로 1조5천9백99원의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가 무산됐다. 여야는 대선일정을 감안해 예결위의 예산안 심의일정까지 단축해 놓았다. 아니 그들은 한 가정의 문제로 끝나지만 의원들의 잘못은 나라 전체를 뿌리째 흔들어 놓을 수도 있다. 이는 비단 국감문제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 대선논리가 모든 정국을 지배하는 것이다. 대선이 기반도 다르고 성향도 다른 두 야당을 하나 되게 했다.

대선이 대통령후보선출을 위한 당내 최초의 자유경선을 뒤엎어버렸다. 대선이 선거를 앞둔 집권당 내부에서 분열을 일으켜 차마 웃지 못할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이런 대선만능주의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 것인가?

첫째로 언론의 무분별한 흥미주의 대선보도경향이다. 한 외국 기자는 한국의 대선관련 보도량은 세계에 유례가 없는 것이라고 대선은 한국인 최고의 오락인 것 같다는 논평을 했다.

차기 대통령을 뽑는 대선에 커다란 관심을 갖고 언론에서도 이를 집

중적으로 다루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국민의 흥미를 자극시키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가리지 않고 앞다투어 보도하는 것은 국민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민주주의의 원칙마저 깨뜨릴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다. 일례로 신한국당 당내경선에서 이회창후보가 대통령후보로 선출된 다음에도 대통령후보 지지를 조장하는 설문조사에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의 지지도를 계속해서 다른 후보들과 함께 보도했다. 이것이 알게모르게 그 후보가 당내 경선의 원칙을 깨뜨리고 출마를 선언하는데 적지않은 영향을 미쳤으리라 본다. 그리고 후보들의 정책이나 비전을 싣는 기사보다는 정치대결에 일할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선거에서는 자기 당의 정책에 맞는 후보와 연대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국론이 분열될 소지가 많은 의원내각제보다는 위와 같은 국정을 마비시킬 정도의 대선위주의 정국을 어느정도 완화시킬 수 있는 대통령의 권력을 제한하는 이선제 형식을 취한 대통령제가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한다.

이러한 언론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후속선거전이나 상호비방이 더욱 판을 치지 않았는가 싶다.

일찍이 A. 토인비는 '역사의 연구'라는 책에서 대중민주주의에서 대중일간지가 가지는 일회성의 천

PC

통신원

MS사의 한국사

왜곡 논란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Age of Empire란 게임을 발표하였다. 이 게임은 간략히 설명해서 세계 각지의 문명에 대한 탐사와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어드벤처형식의 게임이다. 그러나 내용상에서 한반도 고대국가를 일본 식민지로 묘사하여 물의를 빚고 있다. 지금 하이텔 PC통신에서는 이러한 MS사의 한국사 왜곡에 대한 잘잘못의 가름이 한창이다.

우선 MS사의 한국사 왜곡은 MS사 프로그래머와 담당자들의 의도에 의한 것이며, 평소 한국인을 멸시해 오던 일본계 프로그래머들의 농간인 것도 같다(ID: icado)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우리가 MS사에 직접 항의를 하고, MS사 제품 불매운동을 해야 한다(ID: YoYoMa)는 의견과 정부차원에서 MS사에 강력히 항의해야 한다(ID: Donnis22)의견이 분분하다.

한편, "이번과 같은 문제가 발생해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OS환경이 이미 MS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MS를 너무 과신하고, 남용한 우리 자체에 있다"는 의견(ID: chammal)과 "오락게임안에 있는 문명종 이름이 좀 왜곡되었다고 우리 역사가 달라지지는 않으므로 상관하지 말자"는 의견(ID: pascal01)이 있었다.

한국의 대외적인 이미지는 사소한 왜곡에 의해서도 크게 훼손될 수 있다. 일례로 전두환 전대통령의 구속 때 타임지에선 '한국은 재벌이라는 이상한 기업구조를 가진 나라'라는 식의 보도를 한 적도 있다.

게임은 재미를 위해 하였지만, 그 즐거움 추구가 자칫 '왜곡된 역사'를 기정사실화 하지 않게 되길 바란다.

(김수만 기자)

세·시·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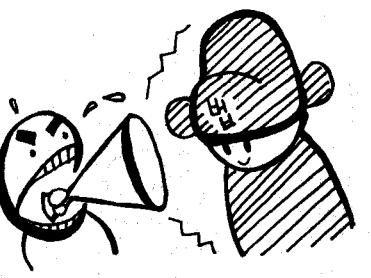
하소연을 위하여

어느날 갑자기 당신이 부당하게 구속된다면 어떻게? 착하고 성실하게 살았던 당신이 갑자기 철창에 갇혀 전기기류가 생길 황당한 위기에 처했다면? 이미 형사들은 당신을 범죄자 취급하고, 이웃사람들은 수근대기 시작한다. "아! 이 억울함을 하소연하고 싶다!"

영장 실질심사제는 부당한 인신구속과 인신구속 초기의 인권유린을 막기 위해 올해 초 도입되었다.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불러 심문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에 대한 판단을 내린 후 그러한 경우에만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이다. 이 제도가 시행된 후 9월중 집계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에 비해 약 2만여명 정도 구속자 수가 줄어든 등 피의자의 인권보호에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13일 국회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이러한 영장심사제의 축소를 주장하는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판사가 필요성을 인정하면 심문해는 것을 피의자나 변호인이 원할 경우에만 하게 되고, 그나마 수사기록만으로는 판단이 불가능할 경우로 제도의 적용을 제한했다. 이에 따라 영장심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 개정에 대해 검찰과 법원은 그간 첨예한 대립을 계속해왔다. 검찰에선 피의자를 법원까지 호송하



최용섭 시사부기자

는데 소모되는 인력낭비를 민생치안과 범죄예방으로 돌려야 하고, 돈이 있으면 변호사를 사 구속을 피할 수 있는 '유전불구속 무전구속' 등의 부작용까지 초래한다며 이 제도의 폐지를 주장한다. 반면 대법원측에선 영장 실질심사제 축소 이후 무고한 피해자를 입는 피의자가 있어선 안된다고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양측 주장 모두가 일면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상과 현실 중 어디에 더 중점을 두느냐는 관점의 차이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13일의 개정안은 합의된 결과라기보다 검찰측의 일방적인 강행에 의해 통과된 것은 아닌가 한다. 구성원 7명 중 5명이나 검사출신 위원이었단 이번 소위는 당연히 검찰측 의견이 반영될 수 밖에 없었다. 더욱이 시민단체와 변호사협회, 일반 여론의 반대 등은 사그라지 무시한 채 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모습은 문민시대의 정세라고 보기 어려울 만큼 권위적이고 강압적인 태도였다.

시행된지 11개월, 이제 갓 태어나 정작도 되지 않은 제도를 단지 수사상의 편의를 위해 죽일 순 없다. 영장실질심사제가 피의자들의 하소연을 먹고 무력무력 자라 인권을 포근히 감싸줄 수 있는 제도로 발전하길 기대한다.

경희만평

김진우



"YS 탄 인제의 대선몰이(?)"

믿을 4 있는 친구 - 삼성



미려한 기록 변화
그리스의 올림포스를 알리고 그 자리에서 숨진 아테네 병사의
이여기가 기록된 벽화. 오늘날 미려한 그림이 되었다.

“또 하나의 승전보”

"이겼다"라는 한마디를 위해 40여km를 쉬임없이 달려온 아테네 청년.
그 젊음의 의지를 드높여 애니콜 리포터를 찾습니다.
무선통신부문 올림포스 파트너. 애니콜 PCS의 이름으로
또 하나의 승전보를 생생하게 전해 주십시오.



올림픽파트너 - 애니콜 PCS
애니콜PCS가 올림픽을 달립니다



'98 나가는 동계 올림픽
무선 통신부문 공식파트너

또 하나의 가족

SAMSUNG

삼성전자

'98 나가는 동계 올림픽
애니콜 대학생
리포터 모집

- 1.응모자격
전국의 4년제 대학 재학생
(해외여행 경력 사유가 없고 일정수준의
영어나 일어 구사가 가능한 대학생)
- 2.선발인원: 10명
- 3.제출서류
-이력서 (사진부착, 연가비한 주상 및 전화번호및
호출기 번호, 교내외 활동사항 및 각종 수상내역 기재)
-공인어학성적표사본 (TOEIC, TOEFL, JPT 중 1개)
-자기소개서 (A4지 2매 분량, 자유형식)

- 4.접수기간 및 접수처
1997.11.10(월)~11.29(토) (29일 소인 유료)
우편접수: 서울시 중로구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746호 나가는 애니콜 리포터
운영사무국 (110-607)
(방문접수처: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32-1
경보빌딩 4층 나가는 애니콜 리포터 운영 사무국)
※ 문의전화: 02) 512-5680, 5680
- 5.선발자 발표
1997.12.26(금) 일간스포츠 및 개별통지

당신을 애니콜 PCS라디오 광고 주인공으로 모십니다
친구사이, 연인사이, 가까운 사이-애니콜 PCS로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재미있는 사연은 그대로 라디오광고로 방송되고 푸짐한 선물도 드립니다.
•전화: 080-001-4242 •기간: 11/17~12/10까지

작은 소리에 강하다-애니콜PCS